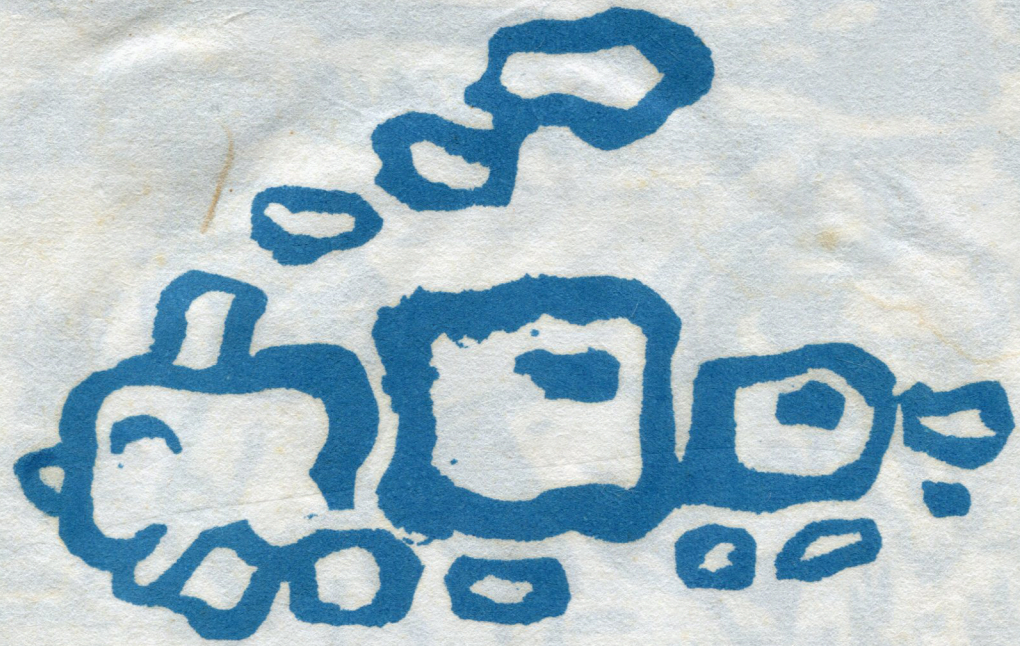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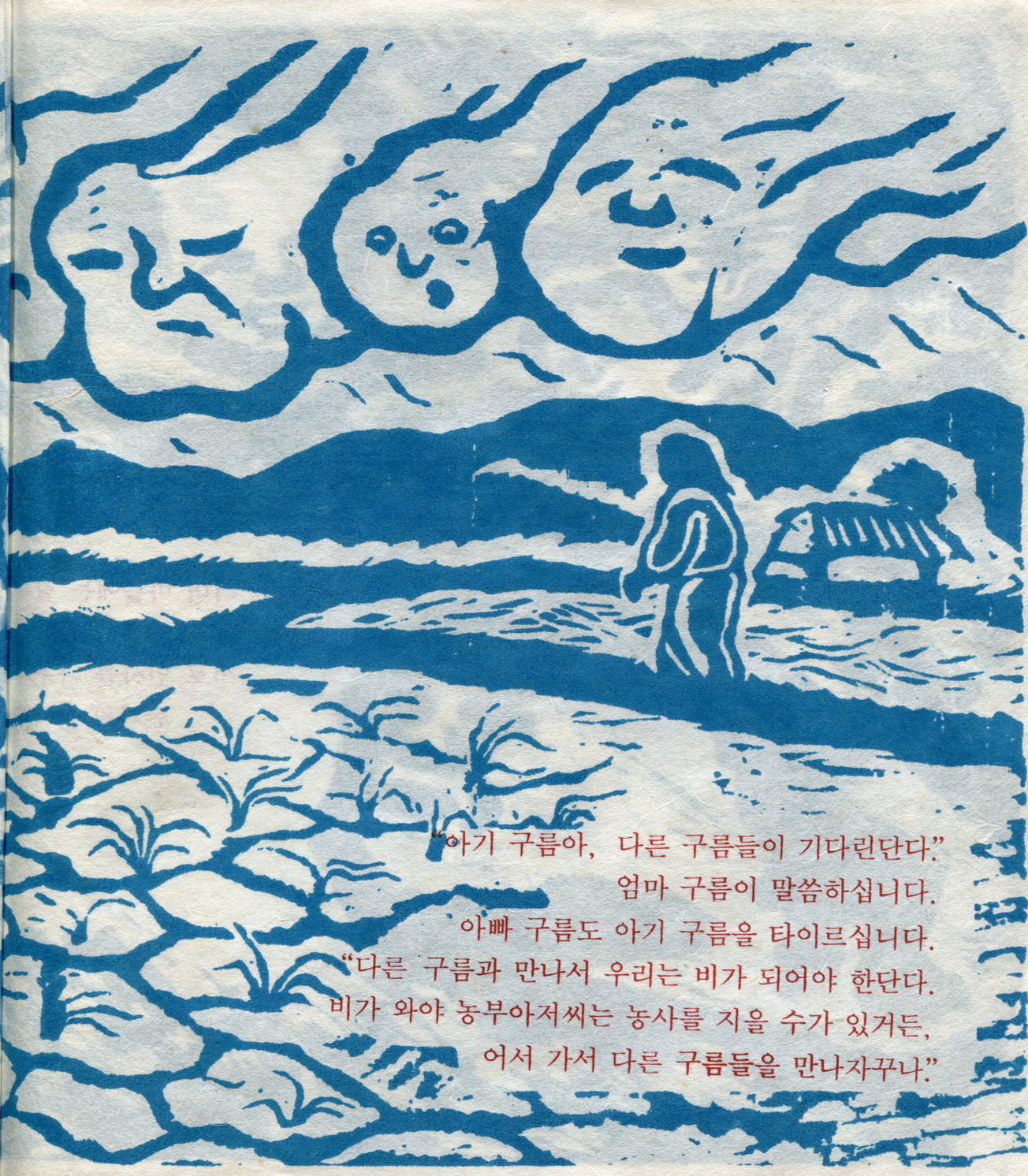
구름가족 이야기



봄 입니다.
구름가족이 나들이를 갑니다.
아빠구름은 성큼성큼 앞장서서 흘러갑니다.
엄마구름은 가만가만 흘러갑니다.
아기구름은 바깥 세상이 무척 신기합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늦장을 부립니다.

구름 가족은 요술장이 입니
움직일 때마다 여러가지 모양을 만드니까
아빠 구름은 코끼리를 만듭니
엄마 구름은 꽃을 만듭니
아기 구름은 로보트를 만듭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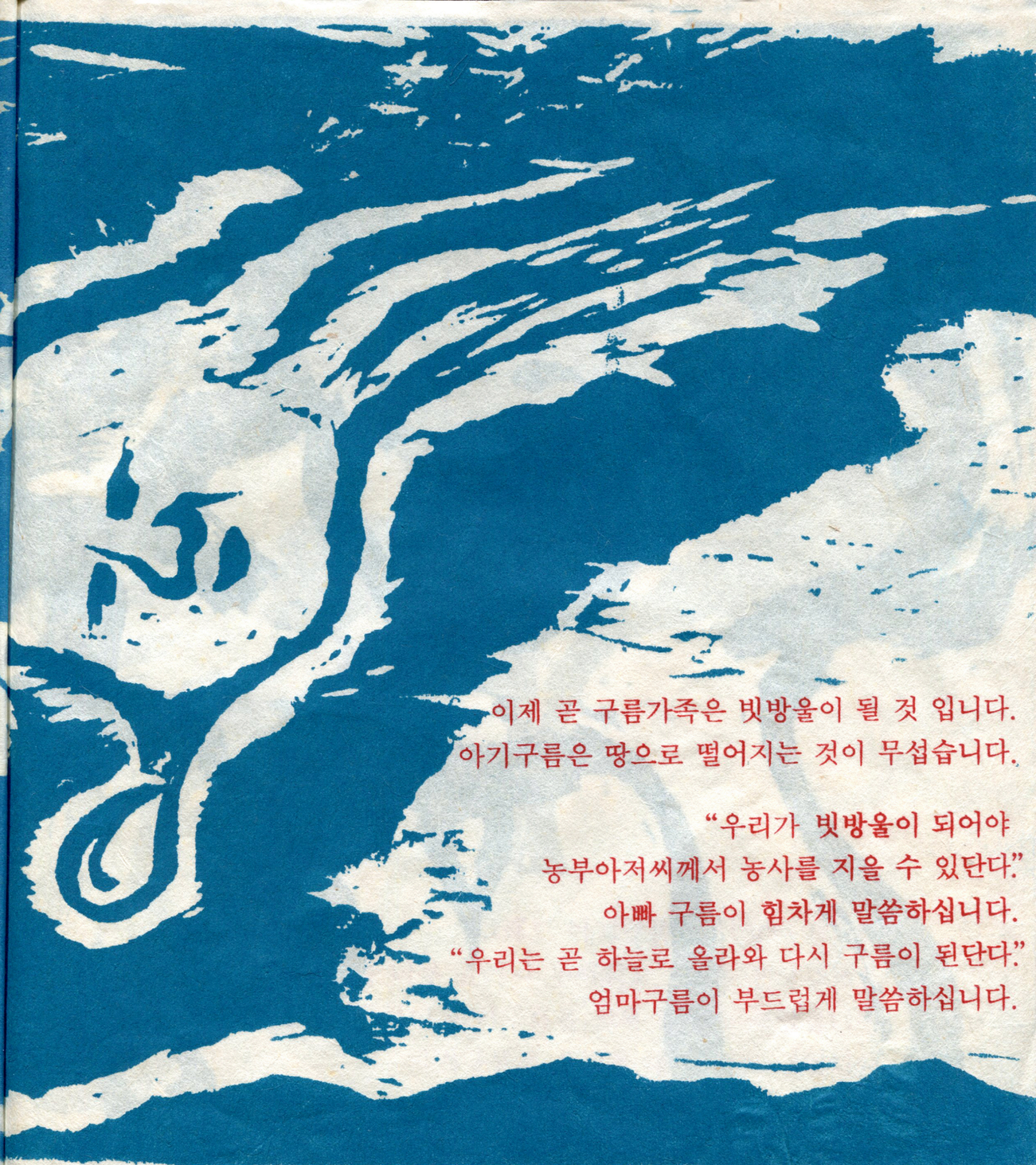
"야, 저 구름 좀 봐, 코끼리다, 코끼리."
"야아 – 저 작은 구름은 로보트같애."
마을의 어린이들이 구름가족을 보며 소리 칩니다.
아기 구름은 어깨가 으쓱으쓱 합니다.
아기 구름은 다른 모양을 만드느라 신이 납니다.



"아기 구름아, 다른 구름들이 기다린단다."
엄마 구름이 말씀하십니다.
아빠 구름도 아기 구름을 타이르십니다.
"다른 구름과 만나서 우리는 비가 되어야 한단다.
비가 와야 농부아저씨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
어서 가서 다른 구름들을 만나자꾸나."

산 너머 마을에는 벌써
구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반가워 합니다.

구름들이 자꾸 모이니까
하늘이 검게 변합니다.



이제 곧 구름가족은 빗방울이 될 것 입니다.
아기구름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빗방울이 되어야**
농부아저씨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단다."
아빠 구름이 **힘차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곧 하늘로 올라와 다시 구름이 된단다."
엄마구름이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기구름은 걱정이 됩니다.
"엄마 너무 높아서 무서워요. 손을 잡아주세요"
엄마구름이 아기구름을 꼬옥 껴안아 주었읍니다.
아기구름은 용기를 내어 뛰어 내립니다.
후두둑, 후두둑 쏴아-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립니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기뻐합니다.
농부아저씨께서도 환하게 웃으십니다.
아기구름은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아기구름은 꼭 어른이 된 기분입니다.

다 읽고 난 후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 보세요.
"네가 구름이 된다면 어떤 모양을 만들꺼니?"
"아기구름이 어떻게 무서움을 참고 비가 될수 있었을까?"
"구름은 비가 되서 어디로 갔을까?"

모내기철에 봄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간절한 마음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를
이야기해 줍시다.

옮긴이 : 권윤덕, 정유정, 진경희
그린이 : 정유정, 고은아, 유미선, 정승각, 권윤덕, 윤순종, 황용훈, 권애숙
만든곳 : 우리 그림
안양시 안양2동 836-11
전화 : 44-8942

우리그림